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4, pp.1-32
<https://doi.org/10.29212/mh.2022..124.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직후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과 운영

이상호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 목 차
1. 서 론
 2. 전시연합대학과 군인교육의 양상
 3.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
 4.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운영
 5. 결 론

초 록 6·25전쟁기 고등교육의 일환으로 군인들에 대한 교육은 1951년 2월 전시연합대학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반인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었고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후방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전시연합대학을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교육제도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1930년대 후반 중국의 국립서남연합대학을 차용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시연합대학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학의 설치 근거에서 1954년 1월에 설립되는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초기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53년에 한국군에서는 미군교육원(USAFI) 제도를 모방하여 공민교육의 내실화를 기도하면서 군내 일반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문맹교육, 초·중등교육과 함께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을 전시군인연합대학이라는 기구를 통해 실시하였다.

전시군인연합대학은 1954년부터 1956년 1월까지 만 2년 동안 실시되어 3천 2백 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교육했다. 당시 열악한 교육 환경 하 대학생 수가 3만 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에서 군내의 대학교육 제도의 운영과 실시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즉 고등교육을 이끌어가는 군의 근대화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흔히 후발국의 근대화 정책의 선도는 군의 규율주의와 선진 기술주의의 습득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경우도 교육받은 장교들이 국가 경제에 유익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했다. 바로 전시연합대학이 고등교육의 운영과 성취에 있어 일부나마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전시연합대학, 전시군인연합대학, 정훈국, 국립서남연합대학, 심리전, 군 통신교육, 미군교육원, 6·25전쟁

(원고투고일 : 2022. 7. 8, 심사수정일 : 2022. 8. 15, 게재확정일 : 2022. 8. 30.)

1. 서론

전쟁기 교육은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한 채 이루어진다. 특히 6·25전쟁은 38선을 중심으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4회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돌파하였기에 더욱 전선이 불안정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기구를 중심으로 한 통치기구 및 행정기구의 이동이 빈번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란의 시기에도 미래를 향한 투자는 계속되었다. 제대로 된 건물과 교육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을 활용하여 이루어진 것은 바로 전시 교육이었다.¹⁾

본 논문에서는 6·25전쟁 발발과 함께 고등교육의 전개과정 특히 ‘전시연합대학’을 일별하고, 전쟁직후 운용되었던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전시연합대학’과 ‘전시군인연합대학’은 별개의 기구이다. 특히 ‘전시연합대학’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²⁾, ‘전시군인연합대학’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가 부족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자료의 미비도 원인이지만, ‘전시연합대학’과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유사성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전시연합대학’은 1951년 2월에 설치되어 1952년 5월에 해체된 임시방편적인 전시 고등교육기관이었고, ‘전시군인연합대학’은

1) 전시 교육의 한 특징으로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상호, 『한국전쟁』 (삼앤섬, 2000), 265~266쪽.

2) 오정렬, 『사다함의 후예들-전시연합대학을 전후한 학생운동』, 『세대』 제7권 통권 69호, 1969; 손인수, 「한국동란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29호, 1995; 최해교,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전중휘, 「전시연합대학에서의 활동」, 『의사학』 제9권 제2호, 2000;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람』 제24호, 2005. 박선영·김희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한국학논집』 제37집, 2008.

1954년 1월에 창설되어 1956년 2월에 폐교된 군내 고등교육기관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쟁기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일별하고,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 및 운영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시군인연합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해 평가해 보자.

본 연구를 위해 활용한 자료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당시 국방부 인사복지국과 정훈국이 작성한 1차 자료와 국내신문 그리고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간사 등이다. 제한적인 것은 당시 ‘전시군인연합대학’에 대한 충분한 1차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이다.

2. 전시연합대학과 군인교육의 양상

‘전시연합대학’은 1951년 2월에 부산에 설치되어 광주, 대구, 전주, 등으로 확대된 고등교육기관이었다. 이 연합대학은 1년여 동안 운영되다가 1952년 5월 31일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전시연합대학의 설치와 운영을 둘러싸고 학계에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첫째는 전쟁기에 일시적으로 설립된 임시방편적 전시교육체제의 하나였다는 주장이다.³⁾ 더 나아가 손인수는 세계적인 교육제도 연구의 한 자료이자, 미래 한국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⁴⁾ 둘째는 당시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교육자원의 부재,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의 필

3) 박선영·김희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7집,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08.

4) 손인수, 「한국동란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제29호, 성신여자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995, 54쪽.

요성 때문이라는 주장이다.⁵⁾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의 운용이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와 사상통일을 위한 계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는 당시 전쟁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각종 제도의 정비, 지방 국립대학의 설치 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전시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를 통해 예비전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국방부의 군사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⁶⁾ 이 외에도 연구사적으로는 미비하지만 전시연합대학에서 활동한 개인의 회고가 간략히 소개되고 있다.⁷⁾

일반적으로 6·25전쟁기 전시연합대학이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교육제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⁸⁾ 그러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여주는 1차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시연합대학은 중일전쟁기 중국의 ‘국립서남연합대학(國立西南聯合大學)’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국립서남연합대학’은 1938년 중일전쟁 시기 청화대학(淸華大學)과 북경대학(北京大學) 및 남개대학(南開大學) 등 세 학교가 연합하여 운남성 곤명(昆明)에서 개교한 전시 임시학교이다.⁹⁾ 세 학교는 국민당 교육부의 명령에 따라 호남성 장사(長沙)로 내려가 장사임시대학을 세우고 한 학기를 보냈다. 1938년 4월 다시 학교를 곤명으로 옮겨 서남대학이라 명명했다. 이 대학은 중일전쟁 종료 시점인

5) 최해교,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5쪽;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립』 제24호, 수선사학회, 2005, 276쪽.

6) 최해교, 위의 논문, 15쪽.

7) 오정렬, 「사다함의 후예들-전시연합대학을 전후한 학생운동」, 『세대』 제7권 통권 69호, 세대사, 1969; 전종휘, 「전시연합대학에서의 활동」, 『의사학』 제9권 제2호, 대한의사학회, 2000.

8) 손인수는 이를 세계 교육사상 전례없는 전시상의 대학운영에 관한 사례로 평가했다. 손인수, 위의 논문, 51쪽.

9) “서남연합대학-전시에 8년간 문 연 중국 최고 학부,” 《중앙선데이》 2008년 3월 1일; “대학은 큰 스승이 있는 곳,” 《중앙선데이》 2008년 3월 9일; 이태준, 「메이기(梅貽琦)의 교육사상과 국립서남연합대학」, 『외국학연구』 제38집, 2016년, 286쪽.

1946년까지 약 8년간 운영되었다.

6·25전쟁 시기 전시연합대학은 바로 이 국립서남연합대학을 모방한 것이지만, 나름대로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는 이후 지방 고등교육기관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더 나아가 지방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전시연합대학의 설치 시기는 연구마다 차이가 있다. 가장 이른 시기는 1950년 11월 설이다.¹⁰⁾ 다음으로는 1951년 2월 설로 이 때 부산에서 설치되어 이후 광주, 대전, 전주로 확대되었으며, 1952년 5월 31일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는 주장이다.¹¹⁾

하지만 대학설치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은 전시연합대학이 운영되고 3개월이 지난 1951년 5월 4일자 문교부령 제19호로 제정 공포된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이다.¹²⁾ 이 법령의 특성은 제4조에 언급되어 있듯이 ‘단독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없는 대학은 정상한 수업이 가능할 때까지 전시연합대학의 명칭으로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합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 특별조치령에서는 수업 시수와 학점 규정, 군사훈련과 현역군인에 대한 대우도 특별히 규정되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당시 발표된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의 하부 조문에서 후일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초기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¹³⁾ 즉 15조부터 20조에 이르는 조문에는 현역군인에 대한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금 길지만 해당

10) 최해교에 따르면 전시연합대학은 1950년 11월 11일부터 개강하였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해 제대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해교, 앞의 논문, 18~19쪽; 연정은, 앞의 논문, 280쪽.

11) 최해교, 위의 논문, 2쪽.

12) 최해교, 위의 논문, 1998, 17쪽.

13) 손인수는 이러한 전시연합대학과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연계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손인수, 앞의 논문, 54쪽.

내용의 전문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¹⁴⁾

제15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복귀한 자 및 제20조에 의하여 복귀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업시간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인정한다.

제16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좌(注: 아래)에 의하여 졸업 또는 진급을 인정한다.

1. 졸업학년생은 단기 4283연도에 한하여 학년말에 가졸업으로 인정하고 복귀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케하여 정규졸업으로 한다.
2. 하급학년생에 대하여는 복귀후 소정의 학점을 취득케 하고 재학년한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되 군무기간을 재학기간으로 간주한다.
3. 학년단일제로 편성된 대학의 학생에 대하여는 단기 4283연도에 한하여 졸업학년생은 가졸업으로 인정하고 복귀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정규졸업으로 하며 하급학년생은 가진급으로 인정하고 복귀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정규진급으로 한다.

제17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 기타 군사훈련의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그 기간에 대하여 제14조 소정의 군사훈련학점(時間)을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 기타 군경에 복무한 학생으로서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직무가 전수과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매학기 5학점

14) 문교부령 제19호 (1951년 5월 4일)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

(120時間)내의 실습과정을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20조 현역군인에 편입된 학생, 제2국민병 응소중에 있는 학생외의 학생은 본령 공포후 1개월내에 복귀하거나 또는 휴학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1950년 해당 연도의 수업은 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1950년 졸업학년생은 이를 졸업으로 인정하고 복귀 이후 학점을 추가적으로 취득케하여 정규 졸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현역군인 학년생들에게는 1950년도를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대학이 실시해야 하는 매학기 3~4학점의 군사훈련은 현역군인들에게는 자동으로 인정되었다. 또한 이공계나 의학계통의 학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업무와 유사성이 있는 경우 이를 매학기 5학점 이내에서 인정하도록 했다. 당시 1학점 당 수업 시수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볼 때 현재 대학의 1학점 당 시수(16시간)보다 50% 이상 가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제19조로 당시 현역군인임에도 후방에 있는 경우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대학교육을 이수하는 현역군인에게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51년 1월 26일자로 당시 문교부에서는 <전시학교육특별조치요강> 을 제정 공포하여 수업을 개시할 것을 시달하였다. 이 요강에 따르면 ① 피란 학생의 취학 독려, ② 가교사(假校舍), 피란 특설학교 설치, ③ 북한 피란 학생 수용, ④ 도시 피란학교 설치, ⑤ 전시연합대학의 설치, ⑥ 흙벽돌 교사(校舍)의 신축, ⑦ 임시교사 1천교실의 건축 계획 ⑧ 전시교재의 발행 등이었다.¹⁵⁾

최해교는 전시연합대학의 시초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등 3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부산에서 최초로 실시한 1951년 2월 19일을 기점으로 삼았다.¹⁶⁾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이 이후 설치되자 이후 전주에서는 1951년 5월 8일에 전북전시연합대학이, 대전에서는 충남전시연합대학이 개강식을 실시하였다.¹⁷⁾ 하지만 당시 부산의 전시연합대학과 그 이외 지역의 전시연합대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부산의 전시연합대학은 서울 소재 대학들, 특히 서울대학교가 중심인 반면, 전북전시연합대학과 충남전시연합대학 등은 그 설립 주체가 지역민들에 의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전시연합대학의 운영은 부산전시연합대학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주체로 이 전시연합대학을 구성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국학대학, 서울여자의과대학¹⁸⁾, 한국대학(현 서경대학), 국민대학, 신흥대학(현 경희대학), 단국대학, 세브란스 의과대학, 숙명여자대학교 등 10개 대학이다.¹⁹⁾

전시연합대학은 교무처, 학생처, 사무처 등 3개 처와 문학부, 이공학부, 법정경상학부, 의약학부, 농수산학부, 예술학부, 가사과, 체육과 등 6부 2과 체제로 편성되었다.²⁰⁾

먼저 운영경비는 3개월 분 등록금 1만원을 소속 대학에 납입하고, 대학은 학생 1명에 대해 1강좌당 500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과과정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별되어 있었고, 졸업 때까지 학생들이 취득해야 하는 학점은 180학점 이상이 원칙이었다. 현재의 대학 학점 130~140학점보다도 30% 이상을

15) 백낙준,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문교사, 1953), 282~286쪽.

16) 최해교, 앞의 논문, 21쪽.

17) 최해교, 위의 논문, 22쪽.

18) 국학대학과 서울여자의과대학은 우석대학에 흡수되었고, 우석대학은 고려대학에 흡수되어 의과대학으로 발전했다.

19) 연정은, 앞의 논문, 294쪽.

20) 부산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부산대학교50년사 1946~1996』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7), 74~75쪽.

더 수강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여기에 별도로 군사학 강의와 군사훈련 학점이 매학기 8학점 추가되었다.

당시 설립된 전시연합대학의 운영은 파행적으로 이루어졌다. 부산전시연합대학의 한 성적표에는 한 학기에 최고 50학점까지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²¹⁾ 학생들의 출석 상태도 부실했다.

부산전시연합대학에는 4,268명이 등록했다고 일부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강신청만 해놓고 전시직장(戰時職場)에 취업하고 있어서 실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이보다 훨씬 적었다고 평가하고 있다.²²⁾

이렇게 1년 동안 운영되었던 전시연합대학은 각 대학들이 단독 개강하면서 해체되기 시작했다. 서울 지역 대학 가운데 부산에서 최초로 단독 개강한 대학은 이화여자대학교였다. 이화여대는 1951년 9월 1일 부산시 부민동에서 단독 개강식을 실시하였다.²³⁾ 이후 동국대학, 부산대학, 성균관대학, 고려대학, 숙명여대, 연희대학 등 서울 소재 대학들이 차례차례 부산과 대구(고려대)에서 각각 단독 개강함으로써 전시연합대학은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 결국 52년 5월에 가서 정식 해체되었다.

전시연합대학이 여러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전시교육체제하에서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국립대학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²⁴⁾ 결국 이렇게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에 만들어진 전시연합대학은 전쟁 직후 지방 국립대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²⁵⁾

21) 최해교, 앞의 논문, 30쪽.

22) 부산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6쪽.

23)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304쪽.

24) 최해교, 앞의 논문, 47쪽.

25) 이를 두고 최해교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종합대학교는 4개교(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지나지 않았지만 52년에 전국의 종합대학교는 7개교(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로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해교, 위의 논문, 49쪽; 박선영·김희용, 앞의 논문, 361~362쪽; 손인수, 앞의 논문, 58쪽.

3.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

전시연합대학이 교육적 필요에 의해 임시적으로 운용된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한다면 전시군인연합대학은 일종의 군인 재교육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 제도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1942년 4월에 설립되어 미국과 해외에서 미군 병사들을 상대로 운영되었던 미군교육원(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USAFI)²⁶⁾과 전시연합대학을 혼합하여 만든 학교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군인들을 상대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하며, 교육 경력을 유지하려는 면에서 보면 미군교육원의 기능을 모방한 것이었고, 연합대학의 형식을 갖고 서울의 각 대학의 유명 교수들이 출강하여 교육을 담당한 것을 보면 전시연합대학의 운영을 모방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전시군인연합대학은 다양한 교육기관을 혼합하여 만든 6·25전쟁기 독창적인 국내 군사 교육기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54년 1월에 설립된 전시군인연합대학은 학업을 중단한 장병들에게 수학의 기회를 부여해서 그들의 노고에 보답한다는 국가적 시

26) 1942년 4월에 창설된 미군교육원은 그 본부를 위스콘신(Wisconsin) 주 매디슨(Madison) 시에 두고 있었다. 처음 창설되었을 때에는 전쟁으로 인해 학교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병사들을 위해 교육 경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수학, 응용과학, 기술과정 등 64개 과정으로 시작되었으며 80여개 대학이 지원하는 통신교육으로 확대되었다. 제2차 대전이 본격화되자 전 세계에 다수의 지부를 설치했다. 미군교육원의 인기 강좌는 수학, 무기(簿記), 회계, 영문법, 미국사 등이었다. 미군교육원의 강좌 시험은 일종의 검정고시 시험의 기능을 갖고 있었다. 1942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본토 및 해외 기지의 군인들에게 검정고시 및 대학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 군 교육기관이었다. Herbert G. Espy, "Th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American Chemical Society and Division of Chemical Education, Inc., vol. 22, 1945. 1, pp. 26~27.

책에 의해 준비되었다.²⁷⁾ 안동준 정훈부장이 자료를 수집하여 손원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안을 제시했다.²⁸⁾

제1안 : 군단별로 교육부를 설치하여 교수 15명이 교실 15개 (인문, 사회, 자연별로 5개교실)에서 연 80일간 면접수업을 실시하는 군내 일반교육실시안

제2안 : 국방, 문교 양부 합의로 발간되는 강좌로서 자습하되 면접수업은 상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실시한다는 군내 통신교육실시안

제3안 : 전시군인연합대학 교육진행요령안

이 안에서 손원일 장관으로부터 제3안을 확정 받은 군 당국은 문교당국과의 협의를 시작했다. 이 때 문교부와 협조된 사항은 전시군인연합대학에서의 교육가능 범위에 관한 문제였는데 인문, 사회과학 계통은 3학년까지, 자연과학 계통 중 응용과학에 속하는 학과는 1학년, 기초과학에 속하는 학과는 2학년 과정까지 각각 수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²⁹⁾

이렇게 해서 1954년 1월 22일 등록을 개시한 전시군인연합대학은 25일 오전 백두진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개강식을 거행했다.³⁰⁾

27)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 시기가 1954년이라 이에 대해 '전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전선에서는 전투가 멈추었지만, 후방에서는 아직도 공비토벌이 진행되고 있었다. 참고로 법률 제18441호(2021. 8.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라고 정의하고 있다.

28)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대계』 I (청구출판사, 1956), A 96~97쪽;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정훈50년사』 (육군본부, 1991), 336~337쪽.

29)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337쪽.

30) 《조선일보》 1954년 1월 26일.

당시 전시군인연합대학은 제1차로 인문과학 계통 최고 3학년 재적자와 자연과학 계통 최고 2학년 재적자 가운데 3분의 1을 선발하여 개강하였다.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사는 장충동에 위치한 한국대학교(현 서경대학교)로 결정되었다.

전시군인연합대학의 교육요강은 다음과 같다.³¹⁾

기간-80일간은 2기로 나누어 40일 간 씩 실시

학점. 1일 8시간(매 과목 90분 교육을 실시하여 1학점으로 인정) 24학점

과목.

공통과목-고등영어, 시사영어, 영작, 국어특강, 한국근세사 (5과목)

2. 과목선택

- 가. 정치학과 - 정치사상사, 국제공법, 헌법, 정당법론, 동양정치사, 국제정치론, 의회론 (7과목)
- 나. 경제학과 - 국문학특강, 한국경제론, 농업정책론, 공업정책론, 경제사, 헌법, 의회론 (7과목)
- 다. 인문과학 - 한중교섭사, 한일교섭사, 한국사상사, 국문특강, 국제공법, 경제학사, 독어 (7과목)
- 라. 자연과학 - 국문학특강, 수학, 일반물리, 일반화학, 한국제도사, 한국경제, 독어 (7과목)

제1차로 이루어진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수강생은 육군과 해병대를 합하여 1백 명이었다. 과목선택에 있어 각 학과 및 단과대학의 수강과목을 일별해 보면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학과의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학과에 <국문학특강> 이나 <헌법> 이 포함되어 있고, 인문과학에도 <국제공법> 이 들어 있다. 더욱이 자연과학에는 <국문학

31) 《경향신문》 1954년 1월 24일.

특강〉과 〈한국제도사〉가 과목선택으로 들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전시군인연합대학이 수강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을 심리전이나 정훈 교육의 첨병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후술에서도 밝혀지듯이 이들이 학기를 마치고 다음 학기를 준비할 때까지는 자대로 복귀하여 정훈관의 임무를 맡았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과목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엿볼 수 있다.

<사진 1> 전시군인연합대학 수업 광경



* 출처: 경향신문 1954년 2월 28일 (오픈 아카이브)

이후 전시군인연합대학 창설에 관한 법적 근거가 1954년 2월 27일 국방부 일반명령 제110호 〈전시군인연합대학창설령〉으로 마련되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일반명령 제110호

단기4287년 2월 27일

국방부장관 손원일

전시군인연합대학 창설령

1. 단기 4287년 1월 25일 0시부로 국방부분부에 전시군인연합대학을 창설한다.
2. 인원 및 편성
인원 및 편성은 잠정적으로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정한다.
3. 임무
각 대학 재학 중 입대한 각 군 장병에 대한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수학(修學) 진학(進學) 조치 및 그 처리
4. 인사사항
 1. 육해공군총참모장 및 국방부총무과장은 전시군인연합대학 기간요원 및 학생을 잠정 차출하라.
 2. 학생차출에 관하여는 별도 지시한다.
5. 보급
보급은 정상적 계통에 의한다.
6. 보고
전시군인연합대학 학장은 이 명령실행과 동시에 최고교수, 학생 및 기간요원 명부와 그 결과보고서를 총무과장을 경유 본관에게 다음 3월 5일까지 제출하라.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창설에 대해 한 신문기사는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사설로 밝히고 있다.³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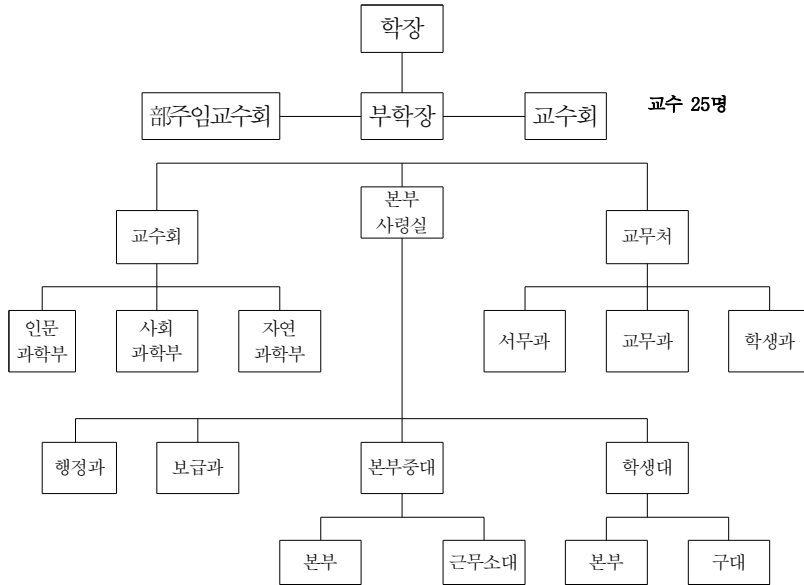
전시군인연합대학이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의 열의 있

32) 《조선일보》 1954년 1월 28일.

는 추진의 결과 26일으로써(注: 25일의 오기) 개강을 보게 된 것을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 첫째로는 군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워야 될 시기에 있는 청년으로서 그 연령으로 그 시대의 지식을 갖추 수 없다면, 극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군대에는 군무(軍務)가 있고 더구나 전시인 때문에 국가존망의 운명을 군인 각자가 두 어깨에 걸머지고 있는 만큼, 군인으로서 군인 아닌 시민학생과 같이 공부의 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 없음은 누구나 인정할 바이다. 그러나 전쟁의 길은 곧 평화에 통하는 길이요, 평화건설의 수고와 명예를 누구에게 보다도 전선에서 돌아온 역전의 청년용사들에게 돌려야 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록 일선에서 분투의 장병일지라 해도 가능한데까지 지식의 새로운 보급을 받을 기회를 보다 더 많이 가지도록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의 군인연합대학안은 우리가 보기에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우선 대학재학중에 입대한 장교들을 위하여 학원을 계속케 한다는 정도로 그 과정도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대학재학 중에 입대한 청년들로서 전쟁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전쟁하는 새로운 군대생활을 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들 기(既)입대장교에게 뿐 아니라 앞으로 입대할 대학생 또는 고등학교출신학생에게 군인으로서 뿐 아니고, 학도로서도 일취월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또 크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시대학을 더 확장하되, 대학재학중에 입대한 장교를 위하여 뿐 아니고, 지휘관으로서 중요한 책임에 있는 고급장교들에게도 적절한 고등교육을 베풀음으로써 그 지휘능력을 급속 향상시킬 수 있는 식견을 높이도록 할 것이 간절하다고 본다. 국방관계당국의 심심한 고려를 바란다.

이 사설을 자세히 보면, 당시 여론의 한 추이를 엿볼 수 있다. 즉 당시 배워야 할 시기에 군대에 들어와 그 시기를 놓친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그러면서 ‘전쟁의 길은 곧 평화에 통하는 길이요’라고 부르짖으면서, 평화건설의 주축이 될 청년들이 그 수고로움을 맡아야 하므로 더욱 더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전쟁하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전쟁하는 새로운 군대생활’이라고 칭했다.

<표 1> 전시군인연합대학 직제표³³⁾



33) 대한민국 국방부, 앞의 책, A 97쪽

<표 2> 전시군인연합대학 편성표³⁴⁾

| 계급 | 대령 | 중령 | 소령 | 대위 | 중위 | 장교 계 | 특 무 상 사 | 일 등 상 사 | 이 등 상 사 | 일 등 중 사 | 이 등 중 사 | 하 사 | 일 병 | 사 병 계 | 일 급 | 이 급 | 삼 급 | 기 타 계 | 합 계 |
|----|----|----|----|----|----|---------|------------------|------------------|------------------|------------------|------------------|--------|--------|-------------|--------|--------|--------|-------------|--------|
| 인원 | 1 | 2 | 2 | 3 | 1 | 9 | 1 | 2 | 3 | 5 | 10 | 4 | 18 | 43 | 1 | 3 | 8 | 12 | 64 |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입학생들의 학적을 살펴보면 다수의 대학 출신자들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료로 확인되는 첫 대학 출신자 명부는 1954년 제1학기 제2차생이다. 이 학생명부를 통해서 보면 총 인원 203명의 각 대학 출신자 통계는 다음과 같다.³⁵⁾

서울대학교 61명 / 고려대학교 15명 / 연희대학교 13명 / 성균관대학교 10명 / 조선대학교 9명 / 정치대학 9명 / 한양공과대학 8명 / 홍익대학 8명 / 단국대학 8명 / 동국대학교 7명 / 청구대학 6명 / 중앙대학교 5명 / 경북대학교 5명 / 전북대학교 4명 / 국학대학 4명 / 한국대학 4명 / 청주대학교 3명 / 국민대학 3명 / 부산수산대학 3명 / 해인대학 3명 / 동아대학 3명 / 전남대학교 2명 / 건국대학 2명 / 대구대학 2명 / 춘천농과대학 1명 / 부산공과대학 1명 / 해양대학 1명 / 신흥대학 1명 / 제주대학 1명 / 감리교신학교 1명

30개 대학의 출신 학생들이 운집하였고, 지역도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이후의 재적학교별 통계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34) 대한민국 국방부, 위의 책, A 97쪽

3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4287년도 제1학기 제2차 학생명부>,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4,

그러나 전시군인연합대학의 교사(校舍)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었다. 1954년 11월 10일에는 장충동 한국대학에서 신당동 국제대학으로 이동하였다. 다행히 경기도 가평에 위치하고 있던 미군 정양병원시설 전부를 미 제8군으로부터 기증받아 육군 제6관구 공병시설대의 지원으로 대형 콘셋 4동과 부속건물(도서실, 식당, 내무반 등)을 이전하였다. 1955년 7월 14일 새로운 전시군인연합대학 건물이 완성되어 7월 15일부터 낙성식을 갖고 운영하였다. 읍진 지역은 동대문구 용두동이었다.³⁶⁾

1955년 한 잡지에 실린 전시군인연합대학에의 입교를 알리는 기사내용을 살펴보자.³⁷⁾

전시군인연합대학 입교 광고

대학재적 중 입대한 장병에 알림
전시군인연합대학입교에 관하여

전시군인 연합대학 제2년도 제1학기 제2차입교를 아래와 같이 알림.

1. 대상은 전시군인연합대학 제2년도 제1학기 제2차에 입교한자 전원과 동 제1학기에 취학치 못한 자로서 인문 과학 제2학년 재적장교 중 취학을 희망하는 자.
2. 차출은 각군 본부에서 지명차출함.
3. 차출된 자는 4289년 1월 23일한 전시군인연합대학에 필착 등록할 것임. 만일 기일내에 등록치 못하면 차출 취소됨.

36)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1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1~2쪽.

37)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39쪽.

4. 인문과학계통 제2학년 재적 장교의 전시군인연합대학 취학 기회는 본 제2차가 최종임.

전시군인연합대학에 대한 일반의 기대는 단순히 재학 중에 군대에 들어온 청년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출신 학생에게는 진학의 희망을, 중요한 책임에 있는 고급장교들에게는 적절한 고등교육의 장을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으로 이러한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출범을 강력한 사상전 전개의 일대 전환기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었다.³⁸⁾

4.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운영

전시군인연합대학 제1기 입학생들은 1월 26일 국립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개강식을 하고 1월 27일부터 서울시내 장충동에 있는 한국대학에서 수업을 시작했다. 제1기 입학생의 수는 272명으로 각 대학에서 초빙된 33명의 강사로부터 강의를 받았다.³⁹⁾ 당시 초빙 교수로는 최남선, 이선근, 이병도 등이 있었다.⁴⁰⁾

초빙 교수 이외에도 전시군인연합대학은 각 대학으로부터 출강하여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들이 있었다. 다소의 편차는 있으나, 1955년도 제2기 제1차의 교수진을 살펴보면 약 71명의 전임교수를 두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서울대 문리과대학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던 민석홍(閔錫泓) 교수가 〈서양근세사〉를, 단국대학교의 서중석(徐仲錫) 교수가 〈한국의외교사〉, 고려대학교의 영문과 이호근(李浩

38) 《경향신문》 1954년 2월 13일.

39) 《경향신문》 1954년 2월 28일.

40) 《경향신문》 1954년 1월 23일.

根) 교수가 〈고등영어〉를 강의했다. 〈국어학〉에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이승녕(李崇寧) 교수가, 변형윤(邊衡尹)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는 〈은행론〉을 강의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양흥석(梁興錫) 교수가 〈전기학〉과 〈전기회로〉를, 서울대학교사범대학의 박익수(朴益洙) 교수가 〈과학사상사〉를 강의했다. 또한 당시 전시군인연합대학장인 홍성은(洪聖恩) 해군대령도 〈국제행정기구론〉과 〈국제전시법〉을 가르쳤다.⁴¹⁾ 철학계의 거두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의 안병욱(安秉煜) 교수도 제2년도 제2기 제5차인 마지막 교육기간에 전임교수로 〈철학개론〉 수업을 담당했다.⁴²⁾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의 수는 변동이 있었다. 제2년도 제2기 제2차생의 경우 수업을 담당한 전임교수는 49명이었다.⁴³⁾ 제2년도 제2기 제3차생의 경우는 다시 전임교수의 수가 61명으로 약간 늘었다.⁴⁴⁾ 하지만 전임교수와 초빙교수를 포함하여 강사의 수는 200여명에 달했으며, 당시 이들이 한국학계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쟁쟁한 인사들이라는 것을 전시군인연합대학교 당국 스스로 자랑할 정도였다.⁴⁵⁾

41)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1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9~10쪽.

42)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5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1쪽.

43)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2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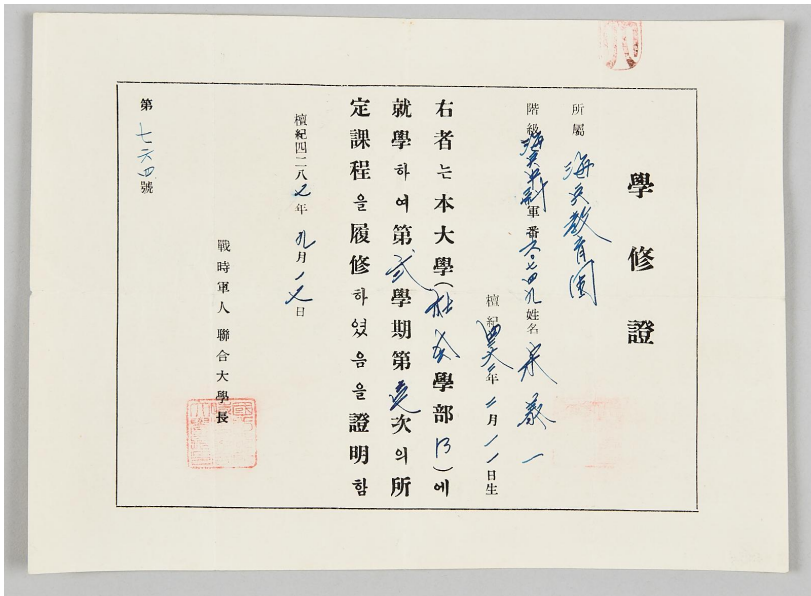
44)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3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1~2쪽.

4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4차〉,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10쪽.

수업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10분까지 90분을 1시수로 해서 강의를 받았다. 1월 27일부터 시작된 강의는 3월 18일로 끝나게 되어 있었고,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민간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했다. 졸업고사는 3월 14일에 치루어졌고, 18일 248명에 대한 학수증 수여식이 거행되었다.⁴⁶⁾

학수증을 수여받은 수료생들은 7월 29일 제2학기 제1차 면접강의를 받을 때까지 각 부대 정훈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았다.

<사진 2> 전시군인연합대학 학수증(수료증)



* 출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954년 5월 17일에는 제1학기 제2기생 수료식이 거행되었다.⁴⁷⁾ 이들은 3월 29일부터 43일간 교육을 받은 203명의 학생들로 다시

46) 《동아일보》 1954년 3월 20일.

47) 《동아일보》 1954년 5월 17일.

원대로 복귀하여 군무에 임하게 되었다.⁴⁸⁾

당시 전시군인연합대학의 교육과장이었던 이영치는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⁴⁹⁾

군 의 특수사정 및 지휘관은 교육지도자를 겸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우선 대학교육을 받을 장교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본 전시군인연합대학의 교문을 나온 장병 제위는 필연적으로 군인사회의 지성인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중략) 일반사회의 지성인으로서 군 내의 지성인으로서 그리고 지휘관인 동시에 지도자의 역할마저 겸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1954년 5월 전시군인연합대학에서의 학점 인정에 대해 문교부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결정을 하였다.⁵⁰⁾ 즉 1학기(평균 43일) 수업 후 시험에 합격한 것을 1학점으로 계산하는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 특별조치령> 규정에 따라 이를 원적대학에서의 수업과정으로 동일하게 인정은 하지만, 전공과목 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선택과목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정식교육과정의 전공으로 인정하기에는 전시교육대학의 교육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을 문교 당국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수업의 강도는 전시연합대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특히 전시군인연합대학의 학생들은 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단결석은 곧 무단이탈로 규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자유선택에 의한 시간표의 작성이 허용되지 않고, 통 수업 시간의

48) 《조선일보》 1954년 5월 21일.

49)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1차생>,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8쪽.

50) 《동아일보》 1954년 6월 1일.

1/7 이상을 결강하면 시험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⁵¹⁾

전시군인연합대학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학장은 2년간 총 4명이었다. 초대 학장으로서는 1954년 1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교를 설립하고 기초를 마련한 안동준(安東濬) 육군대령이었고, 2대 학장은 1954년 4월 1일부터 27일까지 20여 일간 재직했던 김완룡(金完龍) 육군준장이었다. 3대 학장은 1954년 4월 28일부터 1955년 12월 29일까지 1년 6개월 여간 재직했던 김종문(金宗文) 육군준장이었으며, 마지막 학장은 4대 학장으로 교수로도 재직했던 홍성은(洪聖恩) 해군대령이었다.⁵²⁾

전시군인연합대학은 2년간의 운영 끝에 1956년 1월 19일부로 폐교하였다. 이는 전시(戰時)에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후의 마감이었다. 당시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⁵³⁾

<표 4> 전시군인연합대학 제1차년도 이수 현황(1954년)

| 학기 次 | 군 장교/사병 | 제1학기 | | | | 제2학기 | | | | 합계 |
|---------|---------|------|-----|-----|-----|------|-----|-----|-----|-------|
| | | 1 | 2 | 3 | 소계 | 1 | 2 | 3 | 소계 | |
| 육군 | 장교 | 229 | 148 | 228 | 605 | 159 | 120 | 197 | 476 | 1,081 |
| | 사병 | - | - | - | - | - | - | - | - | - |
| 해군 | 장교 | 10 | 6 | 2 | 18 | - | 1 | - | 1 | 19 |
| | 사병 | 8 | 12 | 5 | 25 | - | 11 | 4 | 15 | 40 |
| 공군 | 장교 | - | 19 | 20 | 39 | - | 5 | 9 | 14 | 53 |
| | 사병 | - | 4 | 10 | 14 | - | 8 | 13 | 21 | 35 |

51)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4차>,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7~8쪽.

52)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4차>,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5~6쪽.

53) 대한민국 국방부, 앞의 책, G 95쪽.

| | | | | | | | | | | |
|-----|----|-----|-----|-----|-----|-----|-----|-----|-----|-------|
| 해병대 | 장교 | - | 4 | 3 | 7 | 8 | 5 | 1 | 14 | 21 |
| | 사병 | - | 10 | 6 | 16 | 5 | 9 | 6 | 20 | 36 |
| 계 | 장교 | 239 | 177 | 253 | 669 | 167 | 131 | 207 | 505 | 1,174 |
| | 사병 | 8 | 26 | 21 | 55 | 5 | 28 | 23 | 56 | 111 |
| 합계 | | 247 | 203 | 274 | 724 | 172 | 159 | 230 | 561 | 1,285 |

<표 5> 전시군인연합대학 제2차년도 이수 현황(1955년)

| 군 | 장교/사병 | 제1학기 | | | | | | 제2학기 | | | | | | 합계 |
|-----|-------|---------|-----|-----|-----|-----|-----|------|-----|-----|-----|-----|-------|-------|
| | | 1 | 2 | 3 | 4 | 5 | 소계 | 1 | 2 | 3 | 4 | 5 | 소계 | |
| | | 학기 次 | | | | | | | | | | | | |
| 육군 | 장교 | 134 | 126 | 177 | 186 | 197 | 820 | 186 | 204 | 116 | 149 | 130 | 785 | 1,605 |
| | 사병 | - | - | - | - | 22 | 22 | - | - | - | - | 18 | 40 | 40 |
| 해군 | 장교 | 1 | - | 1 | - | - | 2 | - | - | - | - | - | - | 2 |
| | 사병 | 3 | 3 | 8 | 8 | 7 | 29 | 18 | 4 | 9 | 20 | 10 | 61 | 90 |
| 공군 | 장교 | 19 | 2 | 4 | 4 | 3 | 32 | 25 | 4 | 7 | 9 | 8 | 53 | 85 |
| | 사병 | - | - | 1 | 1 | 6 | 8 | 3 | - | - | 5 | 8 | 16 | 24 |
| 해병대 | 장교 | - | 11 | 2 | 6 | 7 | 26 | 10 | 15 | 2 | 13 | 8 | 43 | 74 |
| | 사병 | 1 | 9 | - | 13 | | 23 | 2 | 11 | - | 7 | 6 | 26 | 49 |
| 계 | 장교 | 154 | 139 | 184 | 196 | 207 | 880 | 221 | 223 | 125 | 171 | 146 | 886 | 1,766 |
| | 사병 | 4 | 12 | 9 | 22 | 35 | 82 | 23 | 15 | 9 | 32 | 42 | 121 | 203 |
| 합계 | | 158 | 151 | 193 | 218 | 242 | 962 | 244 | 238 | 134 | 203 | 188 | 1,007 | 1,969 |

제1차 년도에는 제1, 2학기 3기수만 운영하다가 제2차 년도에 들어와서는 각각 5기수를 운영하여 그 수업대상자를 1.5배 정도 확충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시군인연합대학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자, 국방부는 이에 준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급대학 등의 학교를 설치하여 군에 복무중인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일반교육을 실시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⁵⁴⁾ 이는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외부적 성과와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54) 《경향신문》 1954년 4월 9일.

국방부 정훈국에서는 전시연합대학의 교육 범주를 넘어선 일반대학 재적 중 입대 장병에 대한 계속 교육의 문제와 전시군인연합대학 과정을 마친 장병에 대한 계속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교 당국과 협의하여 예비역 편입 후 복교를 추진하였다.⁵⁵⁾ 이는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 장병을 수학(受學) 기간 동안에 예비역으로 편입시켜 일반대학으로 돌아가 소정의 교육을 완료한 후에 군으로 복귀시키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외에도 1955년에는 군통신교육을 실시하였다. 군통신교육의 대학과정은 인문, 사회과학 계통은 2학년과정, 자연과학계통은 1학년과정까지로 대학통신교육을 받을 자는 대학재적 중 입대한 자 및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장병으로 하고, 이렇게 통신교육을 통하여 획득한 성적으로 학점 또는 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것이었다.⁵⁶⁾

전시군인연합대학 제2차 년도 제2학기 4차를 마무리하며 당시 운영실태에 대해 회고를 포함한 종합적인 보고를 당시 학장인 홍성은은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운영실태> 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먼저 그는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운영에 대해 교육면에서 ‘전투력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의 교양과 도의력(道義力)을 함양하는데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⁵⁷⁾

55) 대한민국 국방부, 앞의 책, A 99쪽;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40쪽.

56)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341쪽.

57)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학생명부 제2년도 제2기 4차>,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국방부 정훈국, 1955, 국가기록원 소장 관리번호 CA0272894, 2쪽.

5. 결론

군에서는 이미 1949년부터 보병 제7연대에서 지역 중등학교 교원을 초청하여 장병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중학교 졸업장을 수여했다. 더욱이 6·25전쟁 기간 중에는 병사의 문맹퇴치에 목표를 두고 군내의 공민교육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휴전 직전까지 23만 여명에 달하는 문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6·25전쟁기 고등교육의 일환으로 군인들에 대한 교육은 1951년 2월 전시연합대학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반인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었고 현역 군인의 경우에는 후방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는 이 전시연합대학을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교육제도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으나, 1930년대 후반 중국의 국립서남연합대학을 통해서 이를 차용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시연합대학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대학의 설치 근거인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의 하부 조문에 후일 전시군인연합대학의 초기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1953년에 한국군에서는 미군교육원(USAFI) 제도를 모방하여 공민교육의 내실화를 기도하면서 군내 일반교육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문맹교육, 초·중등교육과 함께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을 전시군인연합대학이라는 기구를 통해 실시하였다.

전시군인연합대학은 1954년부터 1956년 1월까지 만 2년 동안 실시되어 3천 2백 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교육했다. 당시 열악한 교육 환경 하 대학생 수가 3만 명에 지나지 않는 실정에서 군내의 대학교육 제도의 운영과 실시는 많은 시사점을 안겨준다. 즉 고등교육을 이끌어가는 군의 근대화 정책의 역점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흔히 후발국의 근대화 정책의 선도는 군의 규율주의와 선진 기술주의의 습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조지워싱턴 대학의 냉전사가인 브라진스키(Gregg Brazinsky)에 의하면 군사학교에서 교육받은 장교들이 국가경제에 유익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한 것인데, 이는 당시 한국의 민간 사회에서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⁵⁸⁾ 한국의 경우도 바로 군이 고등교육의 운영과 성취에 있어 앞장서서 그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에 전시군인연합대학 창설과 운영의 의의가 있다.

연합대학의 형식을 갖고 서울 각 대학의 유명 교수들이 출강하여 교육을 담당하고, 미군교육원의 기능을 모방하여 군인들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부여했던 전시군인연합대학은 6·25전쟁기 독창적인 국내 군사 교육기관이었다.

58) 그렉 브라진스키,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책과함께, 2011), 151쪽.

<참고문헌>

1. 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2. 단행본 및 논문

- 국가기록원 소장, 《전시연합대학학생명부철》, 관리번호 CA0272894, 국방부 정훈국, 1954.
- _____, 《기구창설(전시군인연합대학)》, 관리번호 CA0007563, 국방부 인사복지국, 1954.
- _____, 《전시군인연합대학 학점취득확인》, 관리번호 CA0272917, 국방부 정훈국, 1961.
- 대한민국 국방부, 『정훈대계』 I (서울: 청구출판사, 1956).
- 정훈50년사편찬위원회, 『정훈50년사』 (육군본부, 1991).
- 그렉 브라진스키,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서울: 책과함께, 2011).
- <http://uci.or.kr/G701:B-00114484992@N2M>
- 박선영·김회용, 「한국전쟁기 대학상황의 이해: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37집,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008. pp. 341~370.
- <http://doi.org/10.18399/actako.2008..37.013>
- 백낙준, 『한국교육과 민족정신』 (서울: 문교사, 1953).
- <http://uci.or.kr/G901:A-0008501625@N2M>
- 부산대학교50년사편찬위원회 편, 『부산대학교50년사 1946~1996』 (부산: 부산대학교출판부, 1997),
- 손인수, 「한국동관중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제29호, 성신여자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1995. 2, pp. 49~62.

연정은, 「전시연합대학과 학원통제」, 『사립』 제24호, 수선사학회, 2005, pp. 275-303.

<http://uci.or.kr//G704-001587.2005..24.012>

오정렬, 「사다함의 후예들-전시연합대학을 전후한 학생운동」, 『세대』 제7권 통권 69호, 세대사, 1969. 4, pp. 96-99.

이상호, 『한국전쟁』 (고양: 섬앤섬, 2000).

이태준, 「매이기(梅貽琦)의 교육사상과 국립서남연합대학」, 『외국학연구』 제38집, 2016년, pp. 285~312.

<http://doi.org/10.15755/jfs.2016..38.285>

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이화100년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전종휘, 「전시연합대학에서의 활동」, 『의사학』 제9권 제2호, 대한의사학회, 2000, pp. 256~257.

최해교, 「전시연합대학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Espy, Herbert G., "Th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American Chemical Society and Division of Chemical Education, Inc., vol. 22, 1945. 1 (<https://doi.org/10.1021/ed022p26>).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just after the Korean War

Lee, Sang-ho

As part of higher education during the Korean War, education for soldiers began in February 1951 as a Wartime Associate University. However, this system was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ncluding the general public, and active-duty soldiers could attend school only if they were posted in the rear area.

In some previous studies, this Wartime Associate University was evaluated as Korea's original education system, but it was borrowed from China's National Southwestern Associate University in the late 1930s. But the reason why we're paying attention to the Wartime Associate University is that we can find out the initial appearance of the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which was established in January 1954, from the very basis of its establishment.

In 1953, the Korean military strengthened general education in the military by imitating the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and attempting to improve civic education. Along with such the education for the illiterate an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university education, which is a higher education, was conducted through an organization called the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The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had been executed for two years from 1954 to January 1956, educating about 3,200 students. At that time, the number of college students under the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was just only 30,000. The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in the county have many implications. In other words, the emphasis of the military's modernization policy leading higher education can be seen.

Often, they lead the way of modernization policies in the undeveloped countries from the acquisition of military discipline and advanced technology. In the case of Korea, educated officers have accumulated experience in managing projects that are beneficial to the national economy. It is meaningful that the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played a part in the operation and achievement of higher education.

Keywords : Wartime Associate University, Armed Forces Associate University, Jeong Hoon guk(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National Southwestern Associate University, psychological warfare, Correspondence Cours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stitute, Korean War